

<2014년 5/2 정오표>

* 교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합니다.

잘못된 부분 : 총 227페이지 중 교재 212쪽 - ③, ④번 선택지의 해설과 답

(페이지 표시가 없는 책은 뒤에서 15~16쪽 '비트겐슈타인' 지문의 20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이미 답을 만든 상태) 뒤 페이지에서 앞부분 설명과 반대되는 선택지를 고르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뒤 흐름이 맞지 않아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20번 실전풀이 및 상세풀이 중 ③, ④번 선택지 해설 >

잘못된 본문 내용

③ ㉞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재하는 대상'은 '의미 있는 명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선택지의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말하고 이것은 '의미 없는 명제'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결고리가 적절하게 잡힌 선택지입니다.

④ ㉞는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세계'는 글에 따르면 '의미 있는 명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 선택지의 앞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라는 것은 '그림 이론'의 내용이고 '그림 이론'에서 다룬 내용에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가 포함되는 것이죠. '의미 있는 명제'나 '의미 없는 명제'는 모두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의 공통부분을 '의미 없는 명제'에 붙여 오답을 만든 것이죠. '의미 없는 명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둘을 구분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죠. 차이점이 분명해야 할 부분에 공통점을 붙여서 오답을 만들었습니다.

바르게 고친 내용

③ ㉞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재하는 대상'은 '의미 있는 명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명제'에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지 뒷부분의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잘못 되었죠. 글에 따르면 '의미 없는 명제'는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를 다루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의미 있는 명제'에 해당합니다. 선택지의 절반이 교차로 만들어졌습니다.

④ ㉞는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에 따르면 '경험적 세계'는 '의미 있는 명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 선택지의 앞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이 '의미 없는 명제'에 적합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라는 것은 '그림이론'의 내용이고 <보기>의 '이 책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묻고 따라서 글에 따라 우리는 **'그림이론'이 '의미 있는 명제'에 속하는 것인지, '의미 없는 명제'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의미 있는 명제'는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를 다루고 이것은 '경험적 세계'입니다.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는 '경험적 세계'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④번은 적절한 연결고리의 선택지가 됩니다.